

전통 죽이는 '전통시장 살리기'

전남도, 84곳에 15년간 3051억 투입 시설 현대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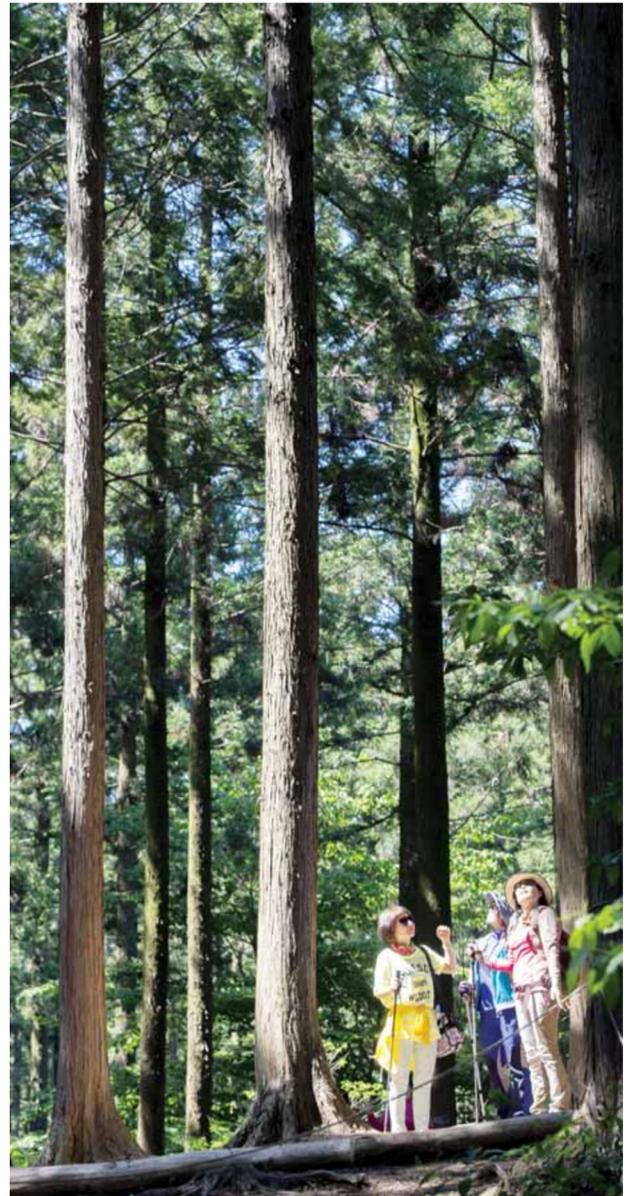
5일장 상인들 갈 곳 없고 분양가 높아 외지인들 차지

전남지역 곳곳에 산재하며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가진 전통시장이 사라지고 있다. 시설현대화사업의 하나인 '시장 재건축'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이 폐쇄되고, 자리를 이전해 현대식 건축물로 구성된 '도시 시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높은 분양가나 경쟁률로 인해 기존 상인은 오히려 입주하지 못하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취지 자체가 무색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관련기사 3면>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15년(예정)까지 행정자치부, 중소기업

청의 국비 보조에 시·군비, 도비 등 모두 3051억1200만원(255건)이 도내 84개 시장에 투입됐다. 시장 1곳당 평균 3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 36억3229만원을 쏟아부은 것이다. 쇠락하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아케이드, 주차장, 진입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노후 정도나 불편이 심각한 곳은 재건축하는 사례도 있었다. 84개 시장 가운데 16개 시·군 25개 시장이 재건축됐으며, 이 가운데 12곳이 기존 5일장에서 정소를 이전해 '현대식 공설마

트'를 짓고, 나머지 13곳은 기존 시장에 건물물을 다시 지었다. 25개 시장 재건축에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만 1525억3500만원으로, 전체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의 절반을 넘어섰다. 그러나 '현대식 공설마트'의 경우 사업의 혜택이 기존 시장 상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무허가 시장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랜 시간 자연적으로 형성된 기존 5일장을 그대로 놔두고 다른 곳에 시장을 재건축, 5일장이 있던 곳은 행정적으로는 폐쇄하고 있지만, 갈 곳 없는 기존 상인들이 여전히 장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시장이 불법시장 이 되고 있는 셈이다. 또 막대한 환세에 비해 성과는 못미처

이 같은 시설 투자 중심의 사업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시장경영진흥원이 사업 이전과 이후의 매출액을 비교한 결과 증가율은 15~2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5~7개 시·군의 시장 점포를 대상으로만 조사한 데다 5일 시장 등 전통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통계라는 지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통시장 상당수가 사업 전에는 폐허 상태나 다름 없었으며, 그나마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현상을 유지하거나 조금씩 매출이 오르고 있는 것"이라며 "기존 시장에 시설 투자가 불가능한 경우 어쩔 수 없이 주변에 현대식 건축물을 지어 시장을 재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5월 무더위 탈출 편백 숲이 최고 초여름 날씨를 보인 28일. 장성 축령산 자연휴양림을 찾은 탐방객들이 편백나무 숲 사이에서 숲 향기를 맡으며 때 이른 무더위를 피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與野 손잡고 "광주 U대회 성공 힘 모으자"

국회 지원단 발대식
범국민적 관심 제고 홍보

여야 정치권이 오는 7월 3일 개막하는 광주유니버시아드(U)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28일 '국회 광주유니버시아드 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공조 체제를 구축했다. <관련기사 3·8면> 이날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발대식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 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 대표, 새정치연합 박지원 전 원내대표, 무소속 천정배 의원 등 여야 의원 40여

명이 참석,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초당적인 지원을 다짐했다. 국회지원단은 광주U대회 준비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것은 물론, 대회 성공을 위한 지원활동과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활동 등을 벌인다. 또 여야를 넘나드는 지원으로 대회 성공 개최에 기여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축사에서 "광주가 이번 U대회를 통해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광주를 알리며 미래 도시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최상의 대회가 되도록 (의원)여러분의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애초 광주U대회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나 지난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서 물러났다. 조지위 공동위원장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도 "민주, 인권, 정의의 도시라고 하는 광주가 그에 덧붙여서 열정, 젊음, 문화의 세련됨이 더해지는 기회를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대표도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5·18 비극 이후, 35년 만에 광주에서 열리는 국제행사가 꼭 성공적으로 치러져야 한다"며

"전 세계에 자랑할 최고의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대표는 개최 준비가 빈틈없이 진행되고, 원활한 대회 진행과 함께 행사 후에도 관련 시설 등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남북관계가 쟁쟁어붙은 이럴 때일수록 비정치분야의 교류가 중요하다"며 "(남북 선수들이 한반도) 단일기를 함께 흔들면서 입장하고 북한 응원단이 내려와 남북이 하나로 응원한다면 이번 대회는 그것만으로 크게 성공할 것"이라며 광주U대회가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에너지밸리기술원 오늘 광주에 문 연다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기업 지원·인력 양성 맡아

광주지역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과 기업 지원, 인력 양성 등을 맡을 '에너지밸리기술원'이 29일 지스트(GIST·광주과학기술원)에 문을 연다. <관련기사 14면> 지스트는 문승현 지스트 총장, 윤장현 광주시장, 조환익 한전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5시 10분 지스트

LG과학도서관에서 '에너지밸리기술원' 개소식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앞서 오후 4시 50분에는 지스트 중앙도서관에서 '에너지밸리기술원 설립 협약서' 체결식이 열린다. '에너지밸리기술원'은 광주지역을 대상으로 에너지 기술 관련 연구과제를 개발하

고 에너지기업 창업보육 및 연구소기업 육성, 제품 생산, 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 에너지 분야 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지스트 LG과학도서관 2층에 430㎡ 규모로 사업기획팀, 기업지원팀, 행정지원팀 등 3개팀 11명으로 운영된다. '에너지밸리기술원'이 문을 열면 한국전력과 전력그룹사의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활기를 띠는 에너지산업에도 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한빛원전 5호기 핵심 설비 부실 정비 가동 의혹 ▶6면

"마을변호사 많이 이용하세요" 광주지검, 활성화 나섰다 ▶7면
KIA, 공룡 징크스 깬다 ▶20면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2015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6월 8일(월)~19일(금)
문의: 062) 605-1115 광신대학교대학원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기원

시민 한마당 음악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D-30일을 맞아 시민여러분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광주시민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5년 6월 3일(수) 오후6시40분
장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옛 도청광장)
주최·주관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식전 부대행사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주요출연진
아이돌그룹 달사벳 / 노라조 / 퓨전국악그룹 도드리 / 아카펠라그룹 DIA
관악그룹 BrassTong / 박선옥 돌풍무용단 / 4인조 성악가 / 치어리딩 / 대북공연 등